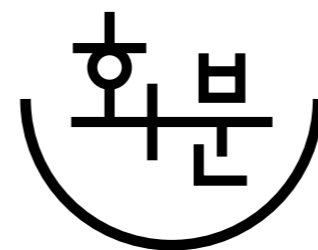


HCF MAGAZINE



2020 SEPTEMBER & OCTOBER

VOL.47 | JUMP



JUMP

몸이 굳을 때까지 멈춰있을 수는 없다. 기약 없는 시련에 좌절하는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창작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약간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서로의 몸짓을 본다. 어려움 속에서 벌떡 일어난 예술가들의 도약에 심장이 뛰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변화에 도전할 기회는 아닐까.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궁평 오솔 아트파빌리온



10 INTERVIEW

예술로 건네는 초록의 대화법
작가 이재형, 최종운

16 COLUMN

언택트 문화예술 시대
접촉 말고 접속으로 소통

20 TALK

화성시 최초의 언택트 축제
2020 품앗이 공연예술축제

24 LIVE

두 개의 마음, 이율배반의 관계학
조형작가 오엔앤한태희



30 WALK

작은 점으로의 커다란 여행
시인 휘민과의 산책

34 FEATURE

행복이 머무는 한가위
선물과 함께하는 문화 데이트

38 TICKET

우승을 향한 뜨거운 도전
2020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42 SKETCH

화성을 그리는 방법
무대 위 라이징스타

44 CHECK

낙엽이 우수수,
연휴를 만끽할 가을 코스



50 HELLO

화성시문화재단 사람들
꿈꾸던 곳에서 도전하는 기쁨

54 LIST

기운 빠지는 날도 있으니까
주저앉은 사람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58 PEOPLE

화성인의 도전

62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
9·10월 문화소식

68 LETTER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70 PLACE

배포처

72 REVIEW

편집 후기



You see things and say “Why?”,
but I dream things that never were and say
“Why not?”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들을 보며 “왜지?”라고 말한다.
나는 존재한 적이 없는 것들을 꿈꾸며 “왜 안돼?”라고 말한다.

- George Bernard Shaw

궁평 오솔 아트파빌리온
A.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514-8

에디터 김채은 사진 강현우



화성의 한 조각

공평 오솔 아트파빌리온의 동그란 지붕은 바다의 물결을, 기둥은 소나무를 연상시킨다. 시간과 빛에 따라 다양하게 비치는 이 구조물은 보고만 있어도 숲에 온 듯 편안함을 준다. 아트파빌리온은 '2020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환경디자인 본상을 수상했고, 이로써 화성은 'IDEA' 금상을 받은 제부도 벤치와 'IF' 금상을 받은 화성3.1운동 만세길방문자센터에 이어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두 거머쥔 도시가 되었다.





© 김건태

THE 담다

INTERVIEW

작가
이재형, 최종운

COLUMN

접촉 말고 접속으로
소통

TREND

2020 품앗이
공연예술축제

LIVE

조형작가
오엔앤한태희

예술로 건넌 초록의 대화법 작가 이재형, 최중운

우리는 종종 아름다운 자연과 소통하지 못해 마음으로만 예뻐하고 만다. 병든 자연을 앞에 두고 말 붙일 방법을 몰라 발만 동동 구른다. 자연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익혀야 할까? 이재형, 최중운 작가는 자연과 인간의 대화법을 골몰하며 우리에게 자그마한 보따리를 건넨다. 손을 넣어 헤집어 보니 깊고 넓은 소통의 세계가 그 안에 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두 사람이 〈GREEN FANTASY〉에서 미디어아트라는 이름으로 진술한 대화법을 제시한다. 두 작가가 건넌 보따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화법을 건져 올리게 될까? 자연에 저마다 다른 대화를 시도하겠지만 전시장에 머무는 동안 눈과 귀가 풍요로울 것만은 분명하다.

글 이주연 사진 강현욱

“다방면으로 사유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면서
관객들이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최중운(이하 '최') 반갑습니다. 미디어아트와 설치 작업을 하는 작가 최중운입니다.

이재형(이하 '이') 안녕하세요, 미디어아트 작업을 하는 이재형입니다. 주로 공공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미디어아트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전시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이 요새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작업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전시도 웹으로 진행되고 있죠. 웹 작업과 함께 미디어파사드 작업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엔 많은 전시가 코로나19를 주제로 다루고 있어서 희망의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어요.

최 저는 요즘 새로운 작업을 위해 리서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평소에 관심은 있었지만 여유가 없어 수집하지 못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새로운 작업을 탄탄하게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라고 생각 중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분이 함께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GREEN FANTASY〉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 〈GREEN FANTASY〉는 인간과 자연의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춘 미디어아트 전시예요. 전시 기획을 듣고 '미지 세계와의 소통'이라는 테마가 떠올랐어요. 멀리서 바라보고 머릿속으로 상상해 온 세계를 작품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요.

이 관객이 몸소 체험하고 생각해 보는 전시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다방면으로 사유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면서 관객이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저는 〈GREEN FANTASY〉 참여 작가지만, 관객이 제가 의도한 대로 느끼기보다는 스스로 고민해 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립하는 전시가 되길 기대하고 있죠.

인간과 자연의 커뮤니케이션이 주제인 만큼 '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최 약 15년 전부터 환경 문제에 대한 작업을 꾸준히 해왔어요. 자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변하고 환경 오염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갑자기 나타난 코로나19도 그렇고,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대홍수 같은 문제들도 그렇죠.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환경 문제를 작업에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작업에선 환경 문제를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 더 깊이 사유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해요.

이 저는 미디어 작업을 하면서 기술의 한계점을 깨달았어요. 자연의 아날로그 요소들을 발견하고 매력을 느끼면서, 디지털의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자연적인 요소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 기술,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건 언제나 제 관심사였기 때문에 작업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하는 자연이 아니라면'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전시예요. 미래의 바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최 음... 생명이 없는 바다? 극단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빠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근미래에 비극적인 모습을 맞닥뜨리게 될 것 같아요. 자연은 더 이상 우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이 저는 좀 다른 상상을 해봤어요. 영화 〈워터월드〉 같은 미래를 떠올렸거든요. 〈워터월드〉는 지구 전체가 물에 뒤덮여 인류 문명이 수중에 가라앉게 되는 영화예요. 이런 재난 상황에도 사람들은 인공섬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꾸리더라고요. 이대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돼서 해수면이 높아지면 10년 뒤 우리는 〈워터월드〉 같은 세상을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사람들은 높아진 바닷물에 맞춰 배를 띄우고, 사라진 대지 대신 거대한 배 위에



서 새 터전을 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변화된 자연에 맞춰 적응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문화를 만들어낼지도 모르지요.

두 분이 전혀 다른 미래를 상상하고 있군요. 이렇게 다른 두 분이 어떤 작업으로 전시를 꾸릴지 더욱 기대되는데요.

최 일상적인 것이 특별해지는 순간 예술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선보일 미디어아트의 이름은 ‘갤럭시’예요. 이 작업은 제 소중한 취미인 ‘별 보기’에서 시작되었어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광활한 우주를 상상하며 작업한 거죠. 우주는 예측할 수 없는 거대한 세계예요. 우주를 배경으로 지구는 티끌만 한 존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더 작은 미물이겠죠. 이런 개념을 토대로 생각을 넓혀 나가는 작업이 될 거예요.

이 저는 이전부터 해오던 ‘페이스 오브 시티’ 작업의 연작을 선보일 예정이에요. ‘페이스 오브 시티’는 인공지능 프로젝트로, 도시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해요. 하나의 사회 이슈를 테마로 삼고 SNS에서 등장하는 언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 자릿값의 내용을 얼굴 표정으로 전시하는 작업인데요. SNS 유저들이 살고 있는 장소를 토대로 지역감정을 보여주기에 때문에 사회 이슈에 대한 지역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어요. 이번 전시에서는 환경을 테마로 두고 진행해 볼 예정이죠.

‘페이스 오브 시티’에 대해 좀더 여쭙보고 싶어요. SNS 언어를 어떻게 표정으로 바꾸는 건가요?

이 작업 설치에 앞서 인공지능을 단어와 문장으로 학습시켜요. 긍정과 부정을 기준으로 삼는데, ‘나는 학교에 간다.’는 문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어른이 이 문장을 본다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은 부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겠죠. 이처럼 하나의 단어나 문장을 세대별로, 성별로, 지역별로 나누어 무작위로 학습시키는 거예요. <GREEN FANTASY>에서 인공지능은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환경 관련 문구를 판독하고 긍정이나 부정이나에 따라 얼굴 표정을 달리할 예정이에요. 환경 문제에 있어선 아마 슬픈 표정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모두 슬픈 표정이더라도 남녀노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표정을 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그걸 지역이란 단위로 묶으면 또 새로운 결괏값이 도출될 거고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웃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장이 되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거고요.

최종운 작가님은 일상에, 이재형 작가님은 사회 이슈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주로 작업의 영감을 어디에서 받고 있나요?

최 보통은 일상에서 얻어요. 평범한 일상 중에도 새로운 경험이 찾아오곤 해요. 그 과정에서 제 뇌리를 자극하는 이미지들을 모아 차곡차곡 저장해 두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것들이 서로 융합되는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그때 하나의 형상으로, 개념으로 푹 떨어져 나온 것을 핵심 삼아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저는 작업할 때 해 온 걸 반복해서 보여주기보다는 서툴더라도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

하는 걸 좋아해요. 설사 기존 작업의 연장선이 될지라도 또 다른 방식에 도전해 보는 거죠.

이 저는 예술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능성에 대해 고민해요. 예술을 무가치한 사치품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예술이 사회적인 측면에서 부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경제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 중 일부는 기계적인 접근에서 야기되곤 해요. 인간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빠져대는 거죠. 그 틈을 감성으로 메워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예술이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사회 이슈를 테마로 작품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싶어요. 추상적인 감성들을 모듈화해서 기능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기능성이 예술품의 희소성보다 더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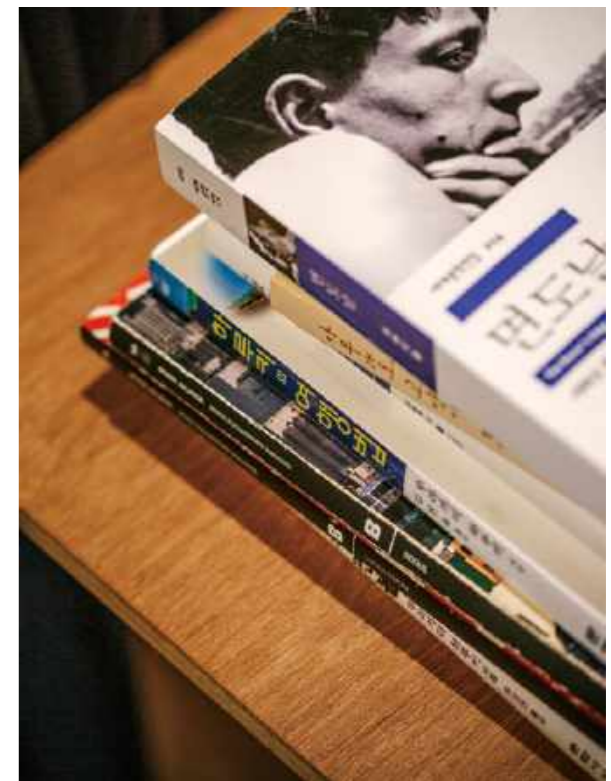
최종운 작가님은 이번 전시에서 빛과 소리의 공감각적인 체험을 제시하신다던데, 작품을 좀더 소개해주세요.

최 이번 작업에선 신비로운 우주에 상상력을 더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 작업을 구상하면서 인류 역사의 위대함을 느꼈어요. 동시에 초라함도 느꼈고요. 방대한 우주 안에서 지구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범우주적으로 봤을 때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사로운 사건들, 아웅다웅 싸우는 일들이 아주 작게 느껴졌거든요. 이번 작업에

서 소리는 교감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관객과의 교감, 오브제와의 교감, 그 시작에 소리가 있는 거죠. 이번 작업에 활용하는 소리는 제가 직접 채집하고 녹음했어요. 한 호흡으로 바람을 불어서 녹음했는데요. 사실 우주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소리가 날 것’이라는 상상을 바탕으로 마치 우주에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작품을 표현할 계획이에요. 녹음된 소리는 전시장을 계속 맴돌 거고요.

이번엔 이재형 작가님께 여쭙볼게요. ‘페이스 오브 시티’ 작업은 실시간 프로젝트이다 보니 데이터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도출될 것 같아요.

이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웃음). 이번 작업은 빅데이터 개념일 수도 있지만, 집단 감성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결괏값을 가지고 올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계층을 통해 지역을 대변하는 작업을 의도하다 보니 우연성이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인공지능 작업도 결국엔 완전한 리얼리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언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기준도 개발자가 세우는 거라서 개발자가 참여한 작업인 거죠. 다만 저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SNS를 활용함으로써 좀더 진술한 정보들을 수집한다는 데 의미를 두려고 해요. 일련의 규칙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열





려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알고리즘을 발견하는 게 유의미하다고 봐요.

어느 예술이나 그렇지만 특히 미디어아트는 해석하기 나름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큼 관객의 반응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었다면 들려주세요.

최 개인전 〈This is Orchestra〉를 진행할 때 나이가 지긋한 관객을 만났어요. 전시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였죠. 그때 제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작품과 함께 전시장에서 살고 싶어요.”라고 하셨는데, 정말 기뻐던 기억이 나요.

이 제가 그간 해온 작업은 사이즈가 크고, 색감이 화려하고, 감각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다 한번은 박정민 작가와 ‘기계 즉흥곡’이라는 작업을 했는데요. 어항 표면에 다섯개의 선을 그리고 그 어항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움직일 때마다 피아노 건반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여덟 마리 물고기의 움직임에 따라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음계를 피아노로 인공지능이 연주하는 작업이었는데, 이 프로젝트에서 처음으로 화려함보다는 서정성에 집중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 관객 반응도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이전에는 ‘예쁘다!’ 하는 반응이었다면, ‘기계 즉흥곡’은 그저 물고기를 멍하니 바라보는 반응이 많았어요. 그때 내면적인 깊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디테일을 만들어준다는 걸 깨달았고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기술

을 활용하더라도 전면에 내보이기보다는 숨긴 채로 활용하는 게 더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두 분 다 관객 반응에서 작업의 의미를 찾는 것 같아요. 관객들이 〈GREEN FANTASY〉에서 어떤 느낌을 받길 원하나요?

최 미디어아트는 작가가 상상한 세상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작업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면 더욱 매력적이겠죠. 전시장에서 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니 작가의 상상 속으로 초대받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환경 이슈를 테마로 삼았지만, 표정으로 드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가볍게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메시지를 담은 이번 작업을 통해 예술은 어렵다는 장벽이 깨지기를 바라요. 나아가 환경 문제에 따른 표정이 왜 이런 표정인지 생각해 본다면 더욱 좋겠죠. 관객이 사유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요.

〈GREEN FANTASY〉는 동탄복합문화센터의 새로운 전시 공간은 동탄아트스퀘어 개관전이예요. 동탄에 새 전시장이 생기는 데 기대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최 무척 고무적인 시도예요. 단발성으로 끝나는 전시가 아니라 다양한 전시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동탄아트스퀘어가 화성시 미디어아트의 메카가 되기를 응원해요.

이 동탄복합문화센터에 위치한 장소다 보니 서울로 나가는 것보다 좀더 가볍게 방문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커요. 순수미술이나 미디어아트에 관해 좀더 목적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전시장이 되면 좋겠어요. 또한 아이들도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너무 어렵지 않은 공간으로, 의미 있는 전시장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화성 시민에게 〈GREEN FANTASY〉에 초대장을 보내면서 인사 나뉘요!

최 제 작품의 주제는 우주예요. 그러니까 화성인이라면 이번 전시를 꼭 봐야 하지 않을까요? 화성이 마스MARS니까요(웃음).

이 많은 분을 초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네 산책 겸 가볍게 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 앞에서 환경 문제에 대해 사유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울림이 전해지기를 바라요. 또한 이번 전시가 코로나19 상황을 위로할 수 있다면 좋을 거예요. 앞으로 예술이 치유의 역할을 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동탄아트스퀘어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GREEN FANTASY〉

일시 10월 5일(월)-22일(목)

장소 동탄아트스퀘어

참여 작가 조인트크리에이티브(이재형, 최종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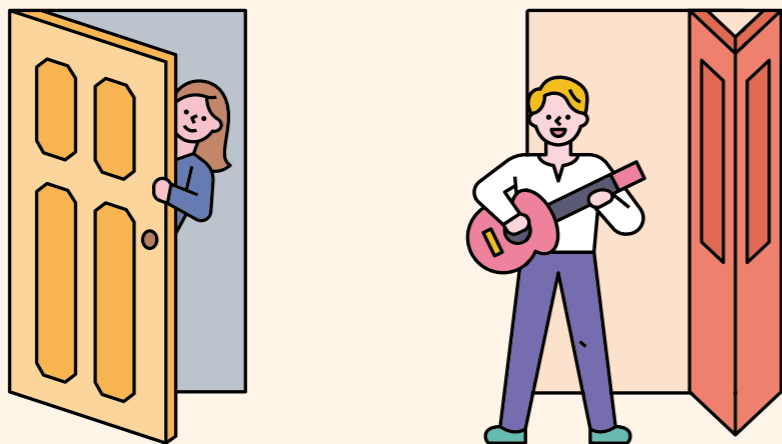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공연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언택트 문화예술 시대 접촉 말고 접속으로 소통

“답답하지 않으세요? 콧바람을 쐬고 싶은가요?” 요즘 가장 흔하게 주고받는 인사말이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 안에 머물러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니, 누군가를 만나고, 듣고, 생각하며 머릿속을 환기해야 건강해지기 마련인데 안전을 위해 접촉하지 말라니.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인가.

글 클로이 리 칼럼니스트



여기 한 가지 역설이 또 있다. ‘생과 사가 오가는 시점에 예술이 무슨 소용이나?’는 따가운 시선이다. 인류가 탄생한 시점부터 늘 일상 속에 함께 존재한 것이 문화예술인데 바이러스 역풍 앞에서 예술은 한순간에 ‘쓸모없는 노리개’, ‘사치품’으로 전락했다. 문화예술계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것이다. 관중을 잃은 예술가들은 당장 일자리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 위기는 또 다른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언택트 예술을 재정의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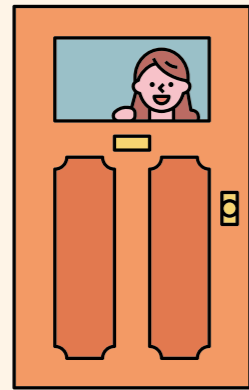
한 장소에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공연·전시를 하던 그동안의 문화예술 향유 방식을 뒤엎을 묘안으로 언택트Untact 방식이 떠오르고 있다. 접촉을 뜻하는 ‘컨택트Contact’에 부정의 의미인 ‘언Un’을 합성한 신조어다. ‘접촉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접촉하는 방법을 바꾼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뮤지컬의 묘미는 배우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받고 감동을 나누는 데 있다. 그림의 묘미는 캔버스 위에서 물감이 어떤 질감으로 표현됐는지 직접 보고 색을 확인하는 데 있다. 발레의 묘미는 무용수들의 역동적인 근육 움직임을 눈으로 감상하는 데 있다. 이 모든 것은 내 눈으로 보고, 듣고, 만져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그게 가능할까? 의문이 들었지만 막상 해보고 나니 그 속에 장점이 보인다. 언택트는 전염병이 불러온 어쩔 수 없는 트렌드가 아니라 언젠가 맞닥뜨리게 될 시대 흐름이었다. 다만 전염병 때문에 조금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 것뿐이다. 또, 국내 최초로 대구문화예술회관이 관중 없는 온라인 콘서트를 시도했다. 3월 2일부터 <DAC on Live> 공연을 현장 관람객 없이 대구문화예술회관 SNS 채널에서 라이브 중계로 진행했다. 예정된 공연을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전용 공연을 따로 제작한 것이다. 국악, 오페라, 뮤지컬 댄스 등 다양한 장르가 온라인 무대에 올랐다. 관객은 공연에 참여한 예술가들을 격려하고 실시간 대화창에서 의견을 주고받는다. 10회 공연만 계획되었지만, ‘재미있다’, ‘힘이 난다’, ‘위로가 됐다’는 폭발적인 반응에 힘입어 10회 공연을 추가로 편성했다. 예술이 가진 본연의 힘, 치유 효과가 빛을 발한 순간이다.

찾아가는 콘서트와 AR 전시

<DAC on Live> 공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다. 이 시기에 힘들어하는 지역 예술가들을 섭외하되, 기관이나 에이전트 소속이 아닌 전업 프리랜서 예술가들에게 우선 기회를 줬다. 위기에 놓인 지역 예술가들은 수입원이 생겨 좋고, 오랜 방콕 생활로 우울감에 빠진 시민들은 오랜만에 활기를 찾아서 좋다. 이후 지역 공공 공연장을 중심으로 ‘언택트 예술’이 유행처럼 퍼져 나갔다. 관람객을 공연장으로 불러들이는 방식이 아닌 도심 속 아파트 단지로 찾아가는 콘서트가 자연스러워졌다. 극장은 차 안에서 영화를 보는 드라이브인Drive-in으로 대체됐다. 공연에 이어 전시 영역까지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이 파고들었다. 몇 개월 사이 공연 생리는 급변했다. 카메라 한 대로 공연 실황을 보여주는 것에서 카메라 여러 대로 다양한 각도를 담아내는 기술로 진화했다.

낮아지고 평등해진 예술의 문턱

관객은 '비대면'이라는 연결 방식이 꽤 똑똑하고 흥미롭다고 말한다. 비싼 좌석에 앉아야만 볼 수 있던 연주자의 표정을 내 집 안방에서 고화질 텔레비전으로 즐길 수 있다니. 기술은 차별이 없다. 인터넷이라는 기본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공평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에 사는 할아버지든 홍콩에 사는 유학생이든 접속만 하면 같은 문화를 즐길 수 있다. 예술의 문턱이 한층 낮아지고 관객과의 접점이 넓어졌다. 대면은 친밀하고 소셜은 친밀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온라인 대면이 이미 익숙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하 계급이 없다. 닉네임에 '님'을 붙여 서로 예의를 갖춘다. 이렇게 상호존중, 수평에 기반을 둔 관계가 오히려 견고하다. 문화예술 분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다.



친절한 예술 투명한 예술

전시의 경우, 작가의 해설을 영상으로 담아 그림과 음성을 함께 제공한다. 현대미술은 작가가 어떤 의도로 만든 것인지, 이것이 세 살 아이의 낙서인지 역대 몸값의 유명 화가가 그린 그림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 여기에 작가의 해설이 곁들여지면 사정이 달라진다. 이에 요즘 새로운 전시 방식은 난해한 현대미술을 친절하게 설명한다. 특히 일정한 기간 무대에 올랐다가 사라지고 마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영상으로 제작해 제공하면 원하는 만큼 반복 재생이 가능하고 공연장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언택트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건 우리 모두 잘 안다. 하지만 대면의 생생함이 그리운 것은 사실이다. 예술을 담은 그릇으로써 온라인 매체는 하나의 대체재일 뿐 현장을 완벽히 대체할 수는 없다. 공연의 생명은 워니 워니 해도 현장성이다. 예술 수요자에게는 배우의 숨결, 땀 한 방울조차 공감의 대상이 되는데 비대면 콘텐츠는 온전히 교감하기 어렵다. 게다가 아직 공연 콘텐츠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은 유명 단체가 독식하고 있다. 비대면 공연이 대중화된다 해도 티켓 파워가 상당한 일부 스타 배우에게만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은 예술가 당사자들이다. 아직까지는 이 소통 방식이 낯설고 불편하다. 급변하는 생태계 변화에 문화예술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예술가는 예술만 잘하면 되는 시대는 지났다. 촬영, 편집, 업로드, 미디어 소통 능력까지 고루 갖춘 멀티플레이어가 되어 한다. 창작 활동과는 별도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기술을 배워야 도태되지 않는다. 정글 같은 문화 예술계에 숨을 이어가기 위한 필수 요소다. 동시에 다양한 예술 장르를 영상으로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오페라, 연극, 뮤지컬, 발레, 클래식, 사진 등 예술 장르는 다양하다. 각자 특성이 다른데 현재 기술은 콘텐츠를 천편일률적으로 기록하기 바쁘다. 장르 특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사이버 공간의 이점을 살릴 대책이 절실하다. 앞으로 갈 길이 아득하지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떤 콘텐츠가 먹힐 것인가'만 고려하면 된다. 그동안 고품격 문화예술에 익숙해진 대중은 눈이 높다. 그곳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양질의 콘텐츠에 기꺼이 지갑을 열 것이고, 부족한 콘텐츠에는 과감히 등을 돌릴 것이다. 까다로운 대중의 입맛을 맞추는 일, 문화예술계가 풀어야 할 숙제다.



클로이 리

인문·문화·예술 칼럼니스트. 질문하고, 경청하고, 기록하며 16년째 기자라는업을 이어오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며 다양한 매체에 칼럼을 소개하고 있다. 관찰하면서 문장을 모으고, 가끔은 그러저러 관참은 문장을 쓰는 기쁨에 산다.

화성시 최초의 온택트 축제 2020 품앗이 공연예술축제



자연과 예술이 하나 되는 축제, <2020 품앗이 공연예술축제>가 올해로 12회를 맞아 민들레연극마을에서 개최되었다. 화성시 최초로 온라인 축제를 진행하여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글 촬영은(기획홍보팀) 사진 제공 차유나(기획홍보팀), 축제2팀

화성시 최초 온라인으로 즐기는 축제

<2020 품앗이 공연예술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해마다 진행하던 시기보다 늦은 8월로 연기됐지만, 감염 확산 증가세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온라인 축제로 변경되었다. 8월 19일에 개최해 사흘간 '방정환 이야기극' 개발을 목표로 한 워크숍을 사랑채극장에서 진행했고, 축제의 메인인 다채로운 공연 프로그램이 주말 동안 펼쳐졌다. 온·오프라인 축제로 동시 개최해, 공연이 진행되는 이틀간 관람객 사전 접수를 진행하려 했으나 안전을 위해 무관중 공연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함께할 수 없어 아쉬운 시민들을 위해 화성시 최초로 축제를 실시간 중계했고, 종료 후에도 24일부터 30일까지 공연 프로그램 다시 보기를 유튜브로 공개했다.





**랜선으로 떠나는
다채로운 공연 여행**

〈2020 품앗이 공연예술축제〉에서는 극단민들레의 〈와, 공룡이다!〉를 시작으로 작은극장H의 〈무니의 문〉, 버블드래곤의 〈방울이의 낮잠여행〉 등 여러 극단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소꿉놀이극 〈와, 공룡이다!〉는 의자, 장갑, 가방 등과 같은 일상 속 물건으로 공룡을 만들고, 청소기, 유리컵 등 주방 도구를 이용해 음향 효과를 낸다. 소재를 다 드러내 아이의 상상을 자극하고, 자연스럽게 공연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또한 〈무니의 문〉은 무니의 여행을 그리는 테이블 오브제극이다. 무니의 모험과 우정 그리고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동화적인 분위기를 온전히 담아냈다. 〈방울이의 낮잠여행〉은 마법같이 나오는 비눗방울 속에 엄마를 그리워하는 소년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어 '심청이 못 봤소?'라는 주제로 화성문화예술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 개발한 작품이 무대에 올랐다. 심봉사 심청이를 찾아 나서는 장면을 협동조합의 네 극단(극단민들레, 극단 화성에서 본 지구, 술래, 아트컴퍼니달문)이 연극, 놀이, 음악 장르로 나누어 옴니버스 형식으로 특색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또한, 〈방정환 새로 알기〉, 〈방정환을 노래하다〉를 통해 방정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 노래들을 부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그중 방정환이 어린이들에게 구연으로 들려주던 이야기 중 하나였던 《성냥팔이 소녀》를 우산의 그림자를 활용해 그림자극으로 제작했다. 〈성냥팔이 소녀〉는 슬프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예술가들의
열정이 빛났던 무대**

축제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하루 두 번씩 행사장을 방역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작성, 체온 측정, 문진표 작성 등으로 방역 관리에 만전을 다했다. 그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송'을 화성 예술가들이 직접 작사·작곡하여 재미있게 풀어냈다. 〈2020 품앗이 공연예술축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위축된 분위기 속에서 활력이 될 수 있는 축제를 지향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취소 없이 진행되었다. 이번 축제 속 예술가들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두 개의 마음, 이율배반의 관계학 조형작가 오엔앤한태희

작가 한태희는 이성적이고 계산적이며 완벽주의자다. 그의 작품은 모두 치밀한 계산에 의해 절제된 메시지를 품고 세상에 나온다. 오엔은 세간의 시선에 통제되는 것을 거부하는 인물로 한태희와 한 몸 에 산다. 둘의 공존은 이율배반적이며 아이러니하지만 끝내 유머러스하다. 불가능할 것 같은 공존은 그녀의 작품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다.

글·사진 김건태

당신은 누구인가요?

저는 철학을 전공했어요. 학창 시절에 미대에 가고 싶었지만 형편이 좋지 못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는데, 똑같은 점심시간에 모두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불편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싫어하는 환경에 있다는 걸 깨달았죠. 늦게나마 미대 진학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순수미술을 배웠어요. 그곳에서 구조적으로 '잘 그리는 것'보다는 피사체를 향한 '나의 추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저의 모든 작업은 철학적 질문과 인문학적 관점을 기초로 이뤄져요. 무언가를 감정적으로 표현하기보단 제 안에서 확실하게 규정된 단어(의미)를 지향점으로 삼죠. 가령 표현하고자 하는 개념이 '고립감'이라고 한다면, 한 개인이 사회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환경을 떠올리고, 그에 맞는 재료와 오브제를 찾는 식으로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느낌을 유발하는 군더더기는 모두 제외하고요. 가끔 제가 작업하는 방식이 논문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의도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것은 한태희의 영역이에요. 아, 저의 작가명 '오엔앤한태희'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한태희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인 반면, 오엔은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캐릭터예요. 망가져도 괜찮은 존재. 요즘 식으로 하면 일종의 '부캐'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제 작품을 제가 의도한 그대로 봐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오엔은 남들이 내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어해요. 과정 자체를 즐기죠. 오엔과 한태희 어느 한쪽을 버리거나 감출 생각은 없어요. 둘이 함께 있을 때 여유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부분과 전체 2, © 오앤앤현대미술

당신은 어떤 작업을 하나요?

제 작품의 주제는 모두 '관계'로 이어져요. 나를 주제로 놓고 탐구하기도 하고, 사회 구조를 놓고 탐구하기도 해요. 대표작은 '부분과 전체 2'예요. 이들을 꼬박 설치한 작품으로, 제목처럼 부분이 모여 전체가 되는 형태를 시각화했어요. 작품 속 세 개의 나무틀은 개인이 가진 어느 부분들을 상징해요. 각도와 조명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이죠. 틀과 틀을 잇는 선은 서로 묶여 있고 통과하고 중간중간 끊어지기도 하며 자기 안의 결정을 의미해요. 그러한 우연과 인과관계가 말하는 바는 '모든 관계에는 다양한 면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작품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해석)은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그중에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어딘가 이율배반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시 말해 나를 판단하는 누군가의 다양한 시각은 이해하지만, 그러한 틀이 어떤 차별을 만드는 게 싫어요. 궁극적으로는 그 틀에 속하기 위해 애들바등하지 말고, 힘을 빼고 살자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예술을 꺼내먹어요'는 김주은 작가님과 협업한 작품으로, 언택트 시대의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고안한 작품이에요. '예술자판기' 패널의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문장을 고르는 거예요. 하나의 그림을 보고 누군가는 '망토를 휘날리며 모험하는 난쟁이'를 떠올리기도 하고, '폭발하는 활화산'을 선택하기도 하죠. 각자 고른 업서에는 자신이 어떤 심리 상태인지 알려주는 짧은 메시지와 달콤한 젤리가 들어 있어요. 그동안 해온 작업과는 다른 형식이었지만, '시간의 다양성'과 '장소의 특수성'이라는 주제가 저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당신의 작업실은 어떤 곳인가요?

작년 10월에 동탄에 작업실을 꾸렸어요. 1층을 주거 공간으로, 2층은 작업실로 사용해요. 주거와 작업을 분리하기 위해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는데요. 작업실로 출근할 때마다 가방을 들고 오는 거예요. 가방을 깜빡했다면 다시 내려가서 가져오기도 하고요(웃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일종의 의식을 만드는 거죠. 종일 작업실에 있다가 해가 지면 작업을 멈추고 칼퇴를 하는데, 역시 가방을 챙겨서 내려가야 해요. 가방이 곧 출근과 퇴근을 결정하는 거예요. 작업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하늘이 보이는 창가예요. 해가 들어오는 바닥에 러그를 깔아두었는데 고양이 '여름'이 자기 자리인 양 자주 누워 있어요. 원래는 제 자리인데 말이에요.

화성은 예술가와의 대화를 많이 시도하는 도시예요. 문화 재단 주최로 예술가와의 간담회도 자주 열고, 지원 사업도 진행하죠. '예술을 꺼내먹어요'의 예술자판기를 함께 만든 주은 작가님도 간담회를 통해 처음 만났어요. 그러한 관계 맺음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어 좋아요. 앞으로의 계획이라면 잠시 완주에서 지낼 예정이에요. 예술가를 위한 한 달 살기 프로젝트인데요. 그곳 레지던시에서 작업과 전시를 진행할 거예요. 아마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작품 체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건 일종의 놀이이자 도전이잖아요. 저는 그런 시도가 늘 새롭고 즐거워요.





© 전진우

THE 가다

WALK
시인 휘민과의
산책

FEATURE
선물과 함께하는
문화 데이트

TICKET
2020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SKETCH
무대 위 라이징스타

CHECK
연휴를 만끽할
가을 코스

작은 점으로의 커다란 여행 시인 휘민과의 산책

주변의 세계가 무한히 넓게 느껴지기도 하고 좁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세계가 줄어들고 확장하는 것일 수도, 내 마음의 변화일 수도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기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여행하지 못하는 시기'는 곧 세계의 작아짐을 뜻하는 것일까? 시인 휘민과의 대화 속에서 생각지 못하게 얻은 몇 가지 위로를 여기에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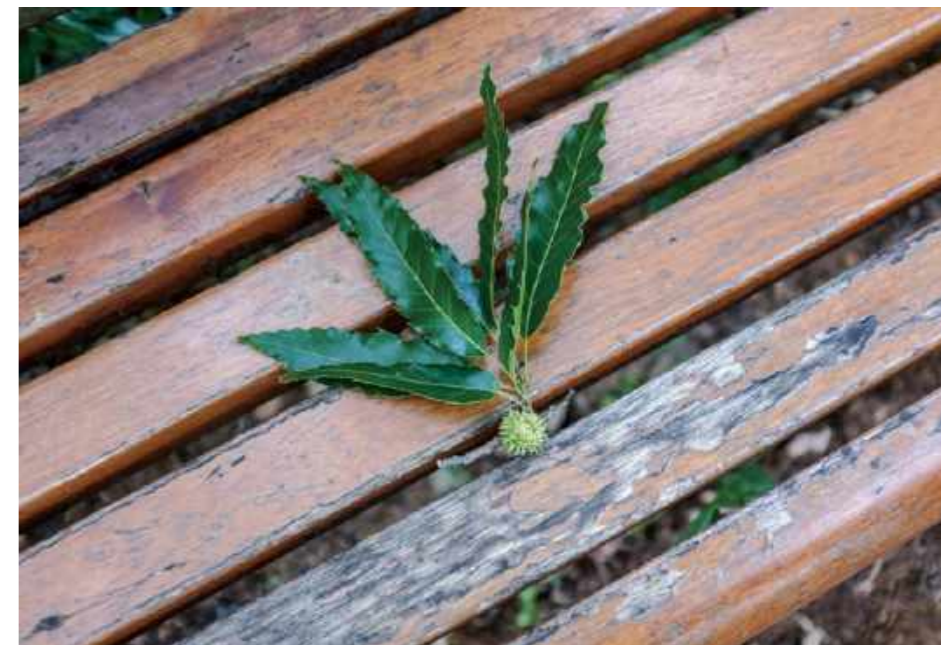
글·사진 전진우

바다가 있는 도시

“이사 온 이듬해 여름, 서해 풍랑경보 문자를 받고 놀라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제가 사는 곳은 기산동이라 바다를 떠올릴 수 없는 곳인데 그런 문자를 받고 하니 신기했어요. 아, 이 도시에 바다가 있구나. 어쩌면 이곳은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매력적인 곳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2015년 겨울부터 화성에서 지내게 된 휘민 작가는 이사한 지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새로 인식하게 된다. 근처에 바다가 있다는 소식이, 딱히 바다를 찾아 헤매지 않던 사람에게도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준 것이다. 메시지 속에 있던 바다라는 단어는 그 자체의 본질보다도 커다란 힘이 있던 게 아니었을까. ‘넓고 깊다’는 상투적인 의미를 벗어나, 화분에 주는 물처럼, 위축되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한 컵의 물로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피기 시작한 휘민 시인은 그 무렵부터 화성시에서 지내는 다른 작가들과의 교류 지점도 스스로 찾고 또 자신의 작품 속에도 화성을 등장시켰다고 말한다.

“지난해 여름, 한국작가회의 화성지부(화성작가회의)가 만들어지면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현재는 20여 명의 회원이 함께 활동하는데 그분들 덕분에 화성이 점점 좋아져요. 매달 모여서 시 합평도 하고 화성 지역 곳곳을 탐방하면서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휘민

충북 청주 출생. 시집 《생일 꽃바구니》, 《온전히 나일 수도 당신일 수도》와 동화집 《할머니는 축구 선수》 등을 펴냈다. 현재 화성과 서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면서 동국대, 숭실사이버대, 한국교통대에서 강의하고 있다.



**도서관 3층의
노트북실 2번 자리**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 시인에게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물었다. 그는 제부도나 용주사, 당성, 궁평항처럼 지역의 명소를 말하지 않고, 나로서는 처음 듣는 장소를 말했다. 지도 위에 손가락으로 짚어 말하듯,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영역 중에서도 더 작은 곳을 일러준 것이다. 병점도서관 3층, 노트북실의 2번 창가 자리. 시인의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나는 혼자서 외딴곳을 여행하는 기분을 느꼈다. 언어나 문화가 이질적인 기분을 주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정확히 말하면 지금 당장은 나 말고 찾아갈 사람이 없는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떨리게 했다.

시인이 말한 자리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기분 좋은 시시함을 느꼈다. 이런 작은 아름다움들로 생활을 채우고 있을 시인을 생각하니 덩달아 기분이 좋았다. 정보 없이 나 혼자 이곳에 왔다면 과연 지금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을까? 궁금하기도 했다. 시인의 앉아 있는 모습이 겹쳐져 보이던 자리. 나는 비록 시인과 동시에 한곳에 있지 않았지만, 그랬기에 시인이 본 것을 똑같이 봤다는 착각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어쩌면 나는 이런 여행을 늘 하고 싶어 했는지도 모르겠다. 창가 자리에 도착해서 그가 적어준 설명을 읽었다. 그 자리에 관한 묘사들은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내 앞의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도서관이 곧 문 달을 6시 무렵의 노트북실. 나는 2번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누군가를 상상하며 잠깐 동안 뒤쪽에서 있었다.

“도서관에서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도서관 3층에 있는 노트북실 2번 자리예요. 그 자리에 앉으면 공원의 굴참나무들이 한눈에 들어와요. 봄부터 겨울까지 변화하는 숲의 모습을 관찰하는 일도 재미있어요.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에는 미세하게 달라지는 나뭇잎의 색깔을 볼 수도 있어요. 책이나 노트북을 들여다보다가 한 번씩 창밖의 굴참나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숲을 곁에 둔 도서관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시집이 있는
카페 구름공장**

병점도서관에서 차로 10분가량 이동하면 닿을 수 있는 카페 ‘구름공장’은 휘민 시인이 병점도서관을 나와서 종종 찾는 곳이라고 했다. 정남면 보통리저수지 근처, 나무와 황토로만 지은 동형의 작은 건축물. 이곳은 이덕규 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직접 선별해 놓은 시집들을 읽으며 커피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다. 카페 공간보다 더 넓은 마당에는 단정하게 가꾼 나무들과 잔디 그리고 걸터앉아 쉬기 좋은 의자와 원두막이 있었다. 그곳에서 끝나가는 여름 더위를 느끼며 차가운 음료를 마시고 있으니 아주 먼 곳으로 여행 온 기분이 들었다. 화성은 취재를 위해 자주 찾은 곳이고, 또 구름공장 근처는 그중에서도 많이 지나다닌 곳인데 전혀 와본 적 없는 곳 같았다. 내가 사는 동네, 심지어 내가 늘 지내는 집에서 가끔 이런 기분을 느끼곤 한다. 가구들의 위치를 바꾸거나 창문을 닦는 일, 자주 쓰는 물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공간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휘민 시인이 글자로 적어준 여행의 지도에 그런 힘이 있었다. 바깥쪽이 아닌 안쪽을 보게 하는 힘. 스쳐 지나가게 두지 않고 들여다보게 하는 힘. 아직 의미 받지 못한 것에 의미를 주는 힘. 그런 힘이 있다면 내 주변의 풍경들을 재배치하고 끌어당길 수 있지 않을까. 세계를 커지게 하거나 작아지게 하는 요소는 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 그게 시인 휘민에게 받은 위로였다.



FEATURE



행복이 머무는 한가위 선물과 함께하는 문화 데이트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마음도 쓸쓸해지는 계절이다. 한가위를 앞두고 소중한 가족, 친구, 그리고 연인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직접 만든 선물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방법을 소개한다.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 8월의말

빛과 만날 때 더욱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 썬캐처



© 루트238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드글라스 썬캐처로 기분 좋은 선물을 해보자. 썬캐처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밝은 태양의 기운을 집 안으로 불러오기 위해 사용하던 풍수 아이템으로, 최근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루트238'에서는 원데이 클래스로 썬캐처, 티라이트 홀더, 명함 홀더, 미니셰이드 등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으며, 작업 소요 시간은 대략 3~4시간이다. 스테인드글라스 기법을 사용해 수강생들이 원하는 대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성심성의껏 도와주니, 사랑하는 사람과 서로를 위한 선물을 만들어봐도 좋겠다.

언제 가을 햇빛, 눈부신 날에
어디서 루트238(경기도 화성시 동탄나루로 28 관리동 2층)
누구와 사랑하는 연인과
문의 카카오프러스친구 '루트238'

눈과 입으로 즐기는
양금플라워 떡 케이크



© 8월의봄

한가위에 빠질 수 없는 우리 떡.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다. '모형처럼 예쁜 떡 케이크를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두고, 남양읍에 있는 '8월의봄'에 방문해 보자. 선생님은 행복을 전달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동그란 떡 위 예쁘게 수놓을 꽃들의 레이아웃, 색 조합은 물론 만드는 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었다. 친절하고 세심한 도움을 받으니 걱정하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입안에 넣으면 퍼지는 달콤함과 함께 느껴지는 행복을 가족과 나누며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보자.



언제 가족과 함께할 한가위를 앞두고
어디서 8월의봄(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49번길 58-7 1층)
누구와 사랑하는 가족과
문의 카카오프러스친구 '8월의봄'



© 마녀의 찬장

직접 만든 접시에 마음을 담아
세라믹 핸드페인팅

가족과 음식을 풍성하게 나누어 먹는 한가위, 직접 만든 접시에 플레이팅 해보는 것은 어떨까? 봉담읍에 위치한 '마녀의 찬장'은 깔끔하면서도 아늑한 세라믹 핸드페인팅 공방으로, 수업 시간에 원하는 도자기를 골라 그 위에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이 유약을 칠한 후 가마에 굽는 과정을 거쳐 완성품을 보내준다.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집중해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기엔 최적의 수업이다. 그림을 정하고 가지 않더라도 예쁜 샘플 도안이 가득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과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만든 그릇을 집에서 사용하며, 함께하는 식사 시간마다 추억을 회상할 수 있다.

언제 맛있는 음식을 나만의 접시에 플레이팅 하고 싶을 때
어디서 마녀의 찬장(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오례2길 7)
누구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과
문의 010 6500 8332
TIP 원데이 클래스 3시간 소요, 수업 후 완성품 약 일주일 소요

아기자기 수공예 제품을 즐기며
나만의 유리·가죽 제품

'수미나미'는 유리를 굽는 아내와 가방을 만드는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 작업실이자 수공예 상점이다. 이곳에서는 유리, 가죽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원하는 디자인이 있다면 선생님과 상담 후 제작을 요청할 수도 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신비한 유리 귀걸이, 동글동글한 유리로 만든 팔찌 등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액세서리는 커플 아이템으로도 좋다. 아기자기 예쁜 수공예 제품들을 보며 알콩달콩 데이트하고, 이니셜 각인으로 오직 하나뿐인 제품을 주문 제작해 선물해 보자.

언제 특별한 선물이 고민될 때
어디서 수미나미(경기도 화성시 노작로4길 22-20)
누구와 소중한 친구와
문의 010 4736 6058
TIP 클래스는 진행하지 않음



© 수미나미

우승을 향한 뜨거운 도전 2020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뮤지션들의 뜨거운 도전으로 수많은 관객의 함성이 터지는 밴드 경연대회, <2020 라이징스타를 찾아라>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했다. 대회의 역대 수상 팀들이 각종 대회 및 방송 등에서 뛰어난 행보를 보이면서 공연 단체들의 꿈의 무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지난 여름날을 더 뜨겁게 만든, '라이징스타'가 되기 위한 청춘들의 뜨거운 도전이 이어졌다.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사진 제공 화성시문화재단

화려한 무대를 꿈꾸는 105팀의 도전장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올해도 전국 각지에서 100팀이 넘는 밴드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잡지 표지 모델, 다큐멘터리 제작, 뮤직 페스티벌 참가 등 매회 수상 팀을 위한 화려한 특전이 제공된 데 이어, 올해는 상금 300만 원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 제작 및 방송 송출 등 우승팀을 위한 혜택이 커지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올해는 예선을 전문가들의 영상 심사 로 진행해 본선에 진출할 TOP12를 선발했다.



무관중 공연에도

뚜렷한 개성이 빛난 본선 무대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은 반석아트홀에서 텅 빈 객석을 앞에 두고 경연을 치러야 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 경연을 진행했고, 이후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본선 경연의 첫 번째 주자 1DB가 보컬의 음색이 돋보이는 'Street Night Man'으로 무대를 열었다. 이어 어텐브리드는 '멋진 인생'으로 신나는 무대를 선보였고, CALF는 달달한 가사로 마음을 사로잡는 곡 '밤이 오고 별마저 저물 때 나는 빛이나'를 들려주었다. 다음으로 남달리트리오는 뛰어난 연주 실력과 귀여운 가사가 돋보이는 '요술거울'로 상큼한 무대를 선보였고, 자니스파크는 'I Don't Wanna Live Like This'로 독특한 보컬, 화려한 연주와 함께 경쾌한 무대를 보여주었으며, Drooo:p의 자작곡 '아무도雅舞島'는 감미로운 음색과 멜로디로 귀를 즐겁게 해주었다. 화려한 비주얼의 여성 밴드 롤링퀸츠의 'Delight' 무대와, 밴

드민하의 독특하고 재밌는 가사가 돋보이는 '불판온더파이어'는 보컬의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더위를 잊게 했다. 차별화된 무대 의상으로 눈길을 끈 크랙샷은 'Mid-night Crime'와 어울리는 화려한 퍼포먼스로 무대 전체를 장악했고, BADLAMB는 'Gula'로 강렬한 보컬과 뛰어난 드럼 연주로 눈길을 사로잡는 록 무대를 선사했다. 이어 HOLOCITY는 즐겁게 리듬을 탈 수 있는 곡 'The Days'와 함께 유니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바비핀스는 '사직서'를 불러 소소한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가사와 멜로디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본선에 진출한 12팀은 관객이 없어도 무대에서 각자의 개성을 발휘하며 매력을 표현했다. 또한, 많은 팀이 자작곡을 선보여 깊은 인상을 남겼다. 참가 팀들의 열정이 시민들에게 통한 듯 누적 조회 수 2만 3천 건을 돌파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



라이징스타와 함께 코로나 블루 날려버릴

〈포레스트-인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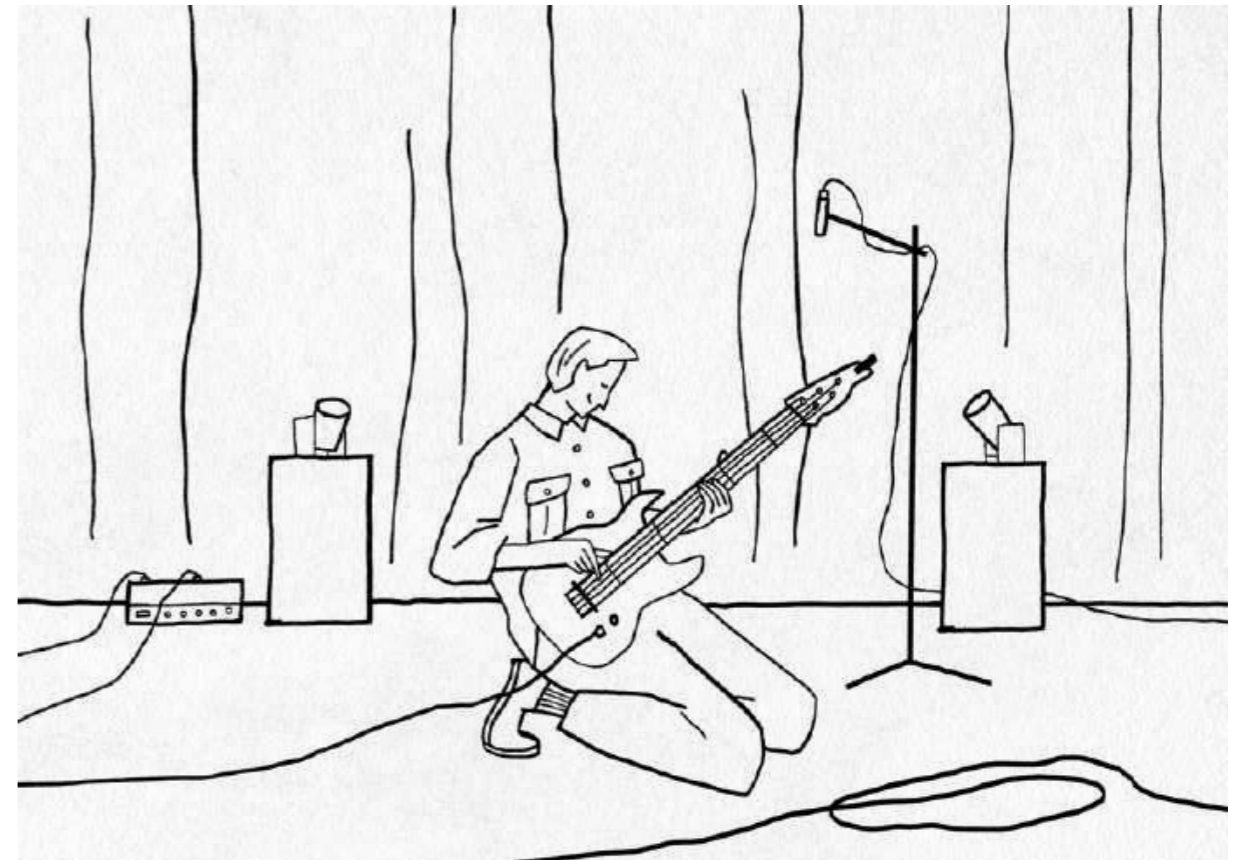
본선 경연 후 심사위원 점수와 투표 기간 영상 조회 수, '좋아요' 수를 합산해 결선에 진출할 TOP5를 선정했다. 크랙샷, 자니스파크, 밴드민하, 롤링퀸츠, BADLAMB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9월 12일, 우승자를 결정짓는 최종 관문 〈포레스트-인 콘서트〉가 9월 밤을 다시 뜨겁게 달군다. 우승을 향한 다섯 팀의 열정적인 무대가 열리는 결선 경연은 관객 사전신청을 받아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청려수련원에서 숲속 피크닉 콘서트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안전한 공연 진행을 위해 무관중 라이

브 스트리밍으로 대체하여 진행한다. 이날 공연에서는 시민 평가단의 투표로 최종 우승팀이 결정되기에 긴장감과 기대감을 더한다. 또한, 〈2019 라이징스타를 찾아라〉의 우승팀 펄션부터 떠오르는 싱어송라이터 오웬과 감성 팝 듀오 마틴 스미스까지 함께해 초가를 밤을 감성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과연, 최종 우승을 거머쥔 올해의 라이징스타는 누가 될까?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공식 홈페이지 및 화성시문화재단 SNS에서 주인공을 만나볼 수 있다. 열정 가득한 도전으로 우승을 차지한 새로운 라이징스타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화성을 그리는 방법 무대 위 라이징스타

화려한 조명과 가슴을 울리는 음악 소리, 그리고 수많은 관객의 함성이 터지는 곳.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 관객에게 전하는 뮤지션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열정이 돋보인다.

에디터 김채은 일러스트 광명주



〈2020 라이징스타를 찾아라〉

2018년 처음 개최한 이래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밴드 경연대회. 수상 팀에게는 잡지 표지 모델, 다큐멘터리 제작, 뮤직 페스티벌 참가, 상금, 뮤직비디오 제작 등 화려한 특전이 제공되며 올해 전국 각지에서 100팀이 넘는 밴드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 화성시문화재단

채색 방법

재료 아이패드 또는 유성펜, 컬러 마커, 색연필, 종이

1 살펴보기

그림에서 기타리스트가 집중될 수 있도록 옷차림, 표정, 악기를 살펴본다.

2 선으로 그리기

역동적인 포즈를 살리되, 단순한 선으로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살린다.

3 색칠하기

무대 위 조명과 음악의 리듬감이 느껴지는 채도가 높은 색으로 색칠한다.

CHECK

낙엽이 우수수, 연휴를 만끽할 가을 코스



무더운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면 운치를 머금은 어떤 풍경들이 떠오른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색빛 나무, 건조한 바람에 풍기는 쓸쓸한 잔상들. 모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것들이다. 이럴 땐 천천히 이 순간을 그저 느끼고 싶다. 오롯한 가을날을 마주하는 오늘. 발걸음을 옮겨본다.

글 김지수



© 오이탈리안

정돈된 이곳 오이탈리안 🍴

클래식한 공간에서 즐기는 정갈한 요리. 셰프, 바리스타, 소믈리에, 디자이너가 만든 음식과 문화가 담긴 공간 '오이탈리안'. 각 분야에 최고 전문가들의 손길이 배어든 레스토랑이다. 주꾸미 알리오올리오부터 부라타&햄 마리나라, 아히쵸, 채끝등심 팬 스테이크까지. 작품을 보는 것 같은 요리의 플레이팅이 인상적이다. 이곳이 유독 끌리는 이유는 브레드 서비스 때문일 것이다. 1인 1메뉴를 주문하면 주어지는 다섯 가지의 빵! 오직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함이다. 우아하고 싶은 어느 가을날, 첫 시작은 오이탈리안과 함께 하면 어떨까.

-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공원로3길 14-14
- O. 매일 11:00~22:00(브레이크타임 15:00~17:30),
(라스트오더 런치 15:00, 디너 21:00)

행복이 있는 그레이스그래니 🍷

동탄의 거리를 지나다 보면 동화 속 배경처럼 따뜻한 공간이 보인다. 작고 하얀 나무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연상케 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빈티지하고 아기자기한 소품과 알록달록 귀여운 모양의 디저트까지. 주위를 둘러보니 어쩐지 행복이라는 단어가 붕붕 떠다니는 것만 같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행복해져요 우리'라는 문구가 이곳에서 내어준 냅킨에 새겨 있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해요. 각자 기준은 다르지만 카페에 머무는 동안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달콤하고 행복한 순간이 가득한 이곳, '그레이스그래니'다.

- A.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2길 24
- O. 12:00~22:00, 화 휴무



© 그레이스그래니



©유일



온전한 마음 도자기 공방 유일 ☺

편안한 발음을 가진 단어, '유일'의 사전적 의미는 '오직 하나밖에 없음. 유쾌하고 편안함'이다. 단어의 뜻을 따라 도자기 공방 유일에서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며 나만의 도자기를 자유롭게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변하는 작품을 보면서 일상에서 느낄 수 없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어쩐지 가을엔 외로운 기분이 든다면, 이곳에서 나만의 휴식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내 손으로 만든 무언가가 텅 빈 마음을 달래 줄지도 모르겠다.

- A. 경기도 화성시 지산1길 22-6 지하 1층
- O. 11:00~18:00, 일·공휴일 휴무



© 환한별, instagram.com/by.hero

오래된 땅 위로 공룡알화석지 🗝

산들산들 훑날리는 갈대, 아름답게 저무는 노을, 드넓게 펼쳐진 길. 모두 공룡알화석지에서 마주할 수 있는 풍경이다. 평화롭게만 느껴지는 이곳에는 공룡이 살던 시간의 역사가 있다. 가만히 길을 걷고 있으면 아득한 시간을 어렵듯이 가능하게 된다. 친구나 가족, 연인과 함께 걸어도 좋지만, 왜인지 오늘은 혼자서 이곳을 걸어보고 싶다. 조용하고 느릿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거닐 수 있는 순간. 조금은 생각에 잠긴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시간이 될 것이다.

- A.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공룡로 659
- O. 09:00~17:00(동절기 10:00~17:00), 월, 1월 1일, 설·추석연휴 휴무



THE 하다

HELLO
화성시문화재단
사람들

LIST
주저앉은 사람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PEOPLE
화성인의 도전

CULTURE & ISSUE
9·10월 문화소식

LETTER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화성시문화재단 사람들 꿈꾸던 곳에서 도전하는 기쁨



문화·예술 분야에 발을 담그고 싶어 하던 학생이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 재단에서 일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꿈꾸던 일을 제 것으로 만들 기회는 막연한 동경을 눈에 보이는 목표로 바꾸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재단을 잘 알고, 알리고자 하는 그녀가 앞으로 새로운 팀에서 해낼 일들도 우연은 아닐 것이다.

글 이다은 사진 강현욱 장소 협조 에데니코

아쉬움 뒤로 마주한 기대

만나 뵈게 되어 반가워요. 《화분》 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문화재단 경영기획국 기획홍보팀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차영은입니다.

기획홍보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기획홍보팀은 크게 기획과 홍보 파트로 나누어져요. 기획 파트에서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본 계획과 경영 목표를 수립하고, 예산 관리와 성과 관리를 해요. 홍보 파트에서는 재단 홍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고 언론 보도나 SNS 등 온·오프라인 전반의 홍보를 관리하죠.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지 궁금해요.
앞서 말씀드린 일뿐 아니라 재단의 정기 간행물인 《화분》, 브로슈어 등의 홍보물과 홍보 기념품 제작 업무도 맡고 있어요. 각 사업팀에서 만들어내는 사업이 저라는 창구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저희가 홍보 자료를 내보내기도 하지만 매체에서 자료나 취재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럴 땐 해당 팀과 매체 간의 매개가 되기도 해요.

지금 이 일을 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요. 원래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많았나요?
어린 시절부터 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뭔가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꼭 무엇이 되겠다기보다는 공연이나 전시, 축제와 관련된 직업을 꿈꾸다가 대학생 때 공연장에서 하우스 어셔와 티켓 매니저로 일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청소년 공연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에도 재능기부로 참여했는데 졸업 후에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창립 멤버로 합류하게 되었죠. 거기서는 기획 보조와 홍보 업무를 맡았어요. 스타트업이었고 직원 수도 적어서 힘들긴 했지만, 팀 사이에 경계가 없어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공연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 분야에 더 확신을 갖게 되었나 봐요. 맞아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회사는 문화재단, 분야는 공연, 직무

는 홍보 쪽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작년 6월에 재단에 입사해서 처음 맡은 일이 공연기획팀 내의 홍보·마케팅 업무여서 저에게는 꿈이 한 번에 실현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들어맞기도 쉽지 않은데... 팀이 바뀌어서 아쉽지는 않았어요?
올해 4월에 부서 이동이 있었어요. 보통 1년 사이클을 돌고 나서 이동을 하는데, 1년도 못 채우고 옮겨져서 좀 아쉽기는 했죠.

새로운 업무를 맡으면서 많은 감정이 오갔을 것 같아요.
지난 일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운 일에 대한 설렘, 부담감이 교차했어요. 아쉽기도 하지만 기획홍보팀은 재단을 통합적으로 바라보



© 화성시문화재단



는 시선을 키울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역량을 기르는 데 좋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기회가 빨리 찾아온 게 행운이라는 생각도 했고요.

제일 좋아하는 업무가 있다면요?

《화분》이요! 공연기획팀에 있을 때 기획 공연을 소개하는 코너를 제가 맡아 썼는데 그때는 제 이름으로 기사가 나오는 게 신기해서 매 호 발행을 기다리곤 했어요. 이전 《화분》의 기획 기사들을 보면서 '이런 아이템은 어떻게 발견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자주 했어요. 한 걸음 떨어져서 봐도 재미있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더 재미있네요.

매거진을 만들 때 특별히 공들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화분》을 통해 문화·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를 인터뷰할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 가장 신경을 많이 써

요. 인터뷰이는 보통 재단 사업과 이어지는 분들로 선정하기 때문에 인물과 사업을 연결해서 함께 알리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이번 호에는 미디어 아티스트들을 인터뷰이로 선정했어요. 최근 동탄복합문화센터 내에 새로운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을 조성했는데, 10월에 개관 프로젝트를 할 아티스트들이죠.

아직 문화재단의 역할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화성시문화재단을 소개한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저희 재단 슬로건이 '당신의 일상이 빛나는 순간'인 만큼 화성 시민이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화성시문화재단과 가까워진다면 스스로 예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요.

도전과 성장은 진행 중

이번 호 주제는 '도전'이에요. 화성시문화재단에 입사한 것도 하나의 도전이라고 한다면, 입사 1년이 지난 지금의 소감을 듣고 싶어요.

우연한 기회로 직장을 정하기도 하지만 저는 문화재단에서 일하게 되기를 늘 꿈꿔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앞서 말한 공연기획사 일도 문화재단에 들어오기 위해서 경력을 쌓은 거였고요. 저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긴장되고 잘 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1년 동안 여러 가지 업무를 경험했더니 이제는 '뭐든 하면 할 수 있겠다, 잘 해내야지!' 하는 의지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아요.

입사 후 한 단계 성장하게 할 만한 일이 있었나요?

팀 이동이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다른 팀 사업이나 사람들을 잘 몰랐는데 기획홍보팀은 재단 내 모든 팀이 현재 무슨 사업을 하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 앞으로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하거든요. 처음에는 외부에서 자료 요청이 왔을 때 담당자와 해당 사업 내용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었어요. 보도자료를 써도 예전 자료를 찾아보고 또 찾아봐야 하니까 하나 하는 데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많이 수월해졌지만 아직 새로 하는 업무들이 계속 나와서 적응해 가는 중이에요.

최근 어떤 목표를 정하고 성공한 경험이 있나요?

유기견 보호소에 봉사 활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두백이고 보호소는 보통 외진 데 있어서 접근이 힘들었고, 무엇보다 봉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루만 참여하는 방식은 어렵고, 관련 단체에 가입해서 정기적으로 봉사나 후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해요. 최근에 남자친구가 주기적으로 봉사 활동 나가는 단체가 있어서 보호소에 다녀왔는데, 강아지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재단 공연이나 축제를 주말에 많이 하다 보니 시간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가고 싶어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기획홍보팀의 차영은으로, 평범한 사람 차영은으로 앞으로 꼭 도전해 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재단 홍보 담당자로서 차영은의 도전은 SNS 팔로워 최고 기록 경신! 재단이 좋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아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단 사업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 도전을 위해선 문화예술계 트렌드도 캐치해야 하고 참신한 콘텐츠도 고민해야 하고, 이미지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익혀야 하고... 공부할 게 정말 많네요(웃음).

개인적으로는요?

결혼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찌면 찌는 대로 빠지면 빠지는 대로, 몸무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웨딩 사진 촬영하고 충격을 받아 버렸어요. 본식이 10월이라 지금 좀 급해요(웃음). 처음 한 달은 열심히 빼고 지금은 그대로네요. 열심히 살을 빼고 유지하는 게 도전이자 계획이에요.



기운 빠지는 날도 있으니까 주저앉은 사람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회사 일과 집안일, 친구, 동료, 가족, 고양이. 그리고 시시각각 변하는 내 안의 감정들. 숨 가쁘게 걷다 지쳐 주저앉았다. 멈추지 않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누구나 기운 빠지는 날은 있으니까. 성급히 일어서는 것보다 먼저 호흡을 가다듬는 게 좋다.

글 하나

이 또한 간직하리라 《인생은 이상하게 흐른다》, 박연준, 달, 2019



“나와 윤 사이에 조그만 웅덩이가 생긴 것 같았다. 웅덩이에 뭐가 들어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둘 사이에 서로 모르는 고단한 일들이 생겨, 웅덩이로 빠져버리는지도 모른다고 어렵פות이 생각했다. (중략) 나는 그애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오래, 연락이 안 되는 시간이 지속되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고마운 날도 허무한 날도 있다. 뜨거운 감정에 괴로울 때도, 차게 식은 기분 에 외로울 때도. 마음이 뜰 때는 이 책을 들고 산책을 나선다. 나는 지나간 것을 이야기하는 시인의 덩덤한 말투에서 위로를 얻는다. 떡볶이와 튀김처럼 꼭 붙어 다니던 친구 C가 내 말에 해매는 표정을 지었을 때, 우리도 참 많이 변했다고 쿨한 척했지만 동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마음 기댈 곳은 오직 그뿐이었던 시간이 아득해졌다. 각자의 일상 테두리에 맴돌며 추억을 추억하는 우리는 언젠가 “서로의 삶 바깥으로 밀려나고” 말까. 그렇다면 결국 싱거워지고 말 순간과 관계에 매번 열중할 이유가 없잖아. 불안과 비관을 오가며 속을 앓는 나를 붙드는 건 이런 대목이다. “윤이 보고 싶다. 이렇게 쓰고 나니 눈물이 후드득, 다된 이파리처럼 떨어진다.” 한 번 끓어오른 마음은 다 식은 후에도 쉽게 잊히지 않는다. 사랑인 채로 남아 있는 기억을 꺼내 꺼안아보고 다시 서랍에 넣는다. 이 또한 간직하리라. 덕분에 나는 내일도 솔직하고 뜨거울 수 있다.

MOVIE

영망인 순간에 들리는 기척
〈미스 리틀 선샤인 Miss Little Sunshine〉, 2006



© 92914

“괜찮아. 가자.”

드웨인은 색맹 테스트 게임에서 영 글자를 찾아내지 못했다. 적록색맹은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없다. 꿈을 이루는 날까지 말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던 드웨인은 버스를 박차고 나가며 온 힘을 다해 내질렀다. “망할!!!” 세상을 잃은 듯 좌절한 드웨인의 마음을 건드리는 건 동생 올리브다. 작고 통통한 아이는 저벅저벅 걸어가 오빠 옆에 앉는다. 나는 올리브가 무릎을 굽힐 때부터 드웨인이 곧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우리가 밀바닥에 주저앉은 순간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작은 기척이다. 우울하고 약해져 있는 나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는 발소리, 곁에 앉아 잠시 이 우울과 침묵을 함께하는 숨소리, 조심스레 내 어깨를 두드릴 때 몸 안에 울려 퍼지는 톡톡닥닥 소리. 나는 남매의 가족과 함께 머뭇거리면서 올리브의 용기와 움직임을 바라봤다. 올리브는 무안해지거나 뿌리쳐질지 모른다고 겁먹지 않는다. 그런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진다. 드웨인은 올리브의 손을 잡고 버스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밝은 모진 말을 사과했다. 좁고 낡은 버스에서 서로를 못마땅해하던 가족은 다시 함께 달린다.

MUSIC

무거운 것은 해변에 벗어두고
[Okinawa], 92914, 2018



© 92914

“I WANT TO STAY BY THE SEA / WATCHING TURN INTO RED
SAT DOWN WITH THE PEOPLE/ LISTEN THROUGH THIS SONG / MOON IS SLOWLY RISING”
“바다 곁에 머물고 싶어 / 붉게 물드는 걸 바라보면서
사람들과 앉아서 / 이 노래를 들었어 / 달이 천천히 떠오르네”

숨 가쁜 하루를 보낸 날, 소파에 누워 이 곡을 크게 들었다. 분주한 일, 쏟아진 말, 번덕스러운 감정들. 숨을 죽여야 들리는 파도 소리는 속을 어지럽힌 것들을 쓸어낸다. 92914의 음악은 가장 몽클한 순간의 소리를 채집해 놓은 것처럼 희미하고 아득하다. 그들은 조용한 목소리와 손짓으로 이미지를 만든다. 잊고 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음악이 드문 시대다. 하물며 기억에 없는 풍경을 상상하게 하는 노래는 더 그렇다. 그러니까 이 곡은 오롯이 혼자인 시간에 듣는다. 상상을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울리는 기타 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파도가 되어 어딘가로 밀려갔다. 파도라면 어딘가에 부딪혀도 괜찮으니까, 방향을 확인하고 걱정할 일도 없지. 팔다리를 쭉 뻗고 어깨를 들썩이니 굳은 어깨가 한결 편안해졌다. 몸을 늘릴 때마다 조금은 유연해지는 기분을 느낀다. 그 후로는 종종 이 노래를 틀고 바다로 향한다. 고단한 하루를 해변에 벗어놓고 맘껏 헤엄치다 파도가 된다. 다시 해변으로 실려 올 즈음엔 남아 있는 게 없을 테니까, 개운하게 맨몸으로 돌아오자.

화성인의 도전

어수선한 여름을 보내고 무심코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은 높게 떠 있고, 하늘은 맑고 조용하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소소한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화성의 가을은 어떤 도전으로 채워질까 궁금해졌다.

에디터 김채은

올가을,
무엇에 도전하고 싶나요?

송미희 | 동화작가 지망생
마음을 담은 동화 한 편 쓰기

9살 때였던 것 같다. 글 쓰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때가. 책 사는 것만큼은 인심이 후하던 어머니 덕에 나는 늘 책에 둘러싸여 자랐다. 그렇게 스무 살이 되었고 망설임 없이 국어국문과에 들어갔지만, 나에겐 재능이라곤 한 톨도 없다는 생각이 늘 나를 괴롭혀 자기 연민에 빠지곤 했다. 결국 글쓰기를 그만두었고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글 쓰는 이곳저곳을 기웃대고 유명하다는 책들도 사 모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게으르고 번번이 포기하고 만다. 그런 내가 마흔을 앞두고 동화를 쓰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애들 보는 책인데, 뭘'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동화책을 한 권씩 읽어갈수록 그 깊이가 가슴을 친다. 삶의 이야기를 아이들 눈에 맞게 단순히 풀어내는 작가의 지혜로움에도 감탄한다. 나는 이제 겨우 네 편의 동화를 습작했다. 세 편은 남들을 흉내 낸 어쭙잖은 겁데기라서 자신에게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이제 막 초고를 쓴 네 번째 이야기엔 내 이야기를 담았다. 아마도 내일 아침에 읽고 나면 빨간 펜으로 떨어내야 할 문장투성이리라. 이번 가을 나는 다섯, 여섯, 일곱 편의 동화를 써내고 싶다. 이번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쓰고 싶다. 그래서 늦은 가을에는 내가 낳은 제대로 된 동화 한 편을 품 안에 안고 싶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자. 그게 내가 이번 가을에 도전하고 싶은 소명이다.

장희영 | 회사원
자유로운 여행 가기

우리는 해외 장거리 부부다. 업무 출장 때문에 남편이 중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비행편이 없어서 남편과 떨어진 지 6개월이 지났다. 남편의 마지막 출국 전에 우리는 4월엔 디즈니랜드를, 10월엔 중국 여행을, 또 수많은 국내 여행을 계획했지만 아쉽게도 모두 무산되었다. 알 수 없는 바이러스로 하루아침에 비행길이 막혔고, 많은 사람의 계획이 사라졌다.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을 지키며 모두가 힘을 모아 하루빨리 이겨냈으면 좋겠다.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모두 잘 종식되고 남편이 중국에서 돌아와, 코로나가 없던 그때처럼 함께 자유로운 여행을 하는 것이 나의 희망이자 도전이다.

박효민 | 회사원
혼자여도 행복한 내가 되기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몸이 힘들어도 꼭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들어가곤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이유로 좋아하던 여행도, 친구와의 만남도 너무 어려워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혼자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무료하고 무엇을 해보자니 생각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렀고, 처음으로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아야하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구경하며 하나하나 시도해 보았다. 해보기 전에는 혼자 하는 모든 일이 조용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혼자 있는 조용함이 좋았고, 그 속에서 나의 취미를 발전시키는 시간이 즐거웠다. 물론 지금은 이전보다 더 조용해지고 각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처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배우는 지금이 나에겐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가을에는 혼자여도 행복한 내가 되는 것이 도전이다.

김영한 | 회사원
자전거 국토 종주하기

우연히 자전거 라이딩 영상에 빠지게 되어서, 그동안 전혀 생각에도 없던 자전거를 구매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취미지만 이제는 날씨가 좋으면 자전거 라이딩 코스를 검색해 여행을 떠나는 일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다. 가을이 되면 자전거 국토 종주 4대강 코스에 도전하고 싶다. 알록달록한 색으로 물든 단풍나무가 가득한 곳으로, 탁 트인 전경이 펼쳐진 강가로 자전거 하나 번쩍 들고 떠나고 싶다. 그날을 위해 자전거 공부도 하고, 연습도 충분히 하려고 한다. 사실 나는 길치라서, 떠나기 전 지도 앱의 로드뷰로 코스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웃음). 시원한 바람이 부는 올가을, 거리에 떨어진 낙엽을 가르는 멋진 자전거 라이딩에 도전하고 싶다.

김인철 | 회사원
하루에 책 다섯 페이지씩 읽기

바쁘게 일하며 여유 없이 사느라 1년에 제대로 된 책을 몇 권 읽지 못하고 있다. 어릴 때는 독서를 좋아해 동네에 있는 시립 도서관에서 자주 책을 빌려 읽곤 했다. 뛰어들어 노는 것도 좋았지만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책으로 간접 경험하는 것도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지니 하루하루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핑계지만 녹초가 되어 집에 도착하면 씻고 눈 감고 자기 바쁘다. 자기 전에 조금이라도 읽고 싶어 책을 머리맡에 두었는데, 그대로 놓아둔 지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올가을부터는 하루에 남는 시간을 쪼개 몇 페이지씩이라도 읽고 싶다. 예전부터 읽고 싶은 책들을 구매해 왔지만 읽고 싶은 마음이 책 사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즘은 나에게 교훈을 주고 나를 채찍질하게끔 도와주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싶다. 또 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여행자들의 에세이집도 읽으며 대리만족을 하고 싶다. 가을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 하니 독서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에도 좋은 이유가 될 것 같다.

10년 뒤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아린 | 유치원 선생님
사랑받고 사랑 주는 선생님

나는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직업에 대한 고민이 많아 다양한 일을 해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나에게 딱 맞는 직업임을 알게 되었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 아이의 예쁜 웃음에 힐링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10년 후에도 나는 행복한 유치원 교사이고 싶다. 아이들이 내가 보고 싶어서 유치원 가고 싶다고 할 만큼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한 초심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세원 | 자영업자
성공한 고양이

자영업을 하는 나는 요즘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다. 10년 후 나를 떠올려봤다. 지금 하는 일들이 모두 잘되어 성공한 삶을 보냈으면 좋겠다. 또, 지금보다도 시간상으로 여유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 '도도한 모습의 성공한 고양이'로 미래의 나를 표현해 봤다. 일과 후 지치지 않고 밤을 즐기는 고양이가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도전해야겠다.

화성시문화재단 9·10월 문화소식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사진 화성시문화재단

우리 지역 한옥, 카페 등에서 즐기는 하우스 콘서트
〈더 에이치 콘서트The H Concert〉



예술인과 관객이 예술로 소통하는 소규모 공연 프로그램 〈더 에이치 콘서트〉가 문화의 날이 있는 매월 마지막 주마다 진행된다. 공연명의 'H'는 화성시Hwaseong city만의 하우스 콘서트House concert라는 의미로, 화성시 내 민간이 운영하는 한옥, 카페, 미술관 등에서 20~30명 단위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 전통음악 연주자들이 모인 아트컴퍼니달문, 비올리스트 라세원, 재즈피아스트와 콘트라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다움 트리오가 한옥과 카페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8월에는 하모니시스트 이윤석과 대금 연주자 한충은, 피아니스트 김한길, 무수한 히트곡을 쓴 작곡가 김창기의 '김창기 밴드'의 하우스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취소 및 연기되었다. 아티스트와 친숙한 장소에서 직접 소통하며 즐기는 특별한 하우스 콘서트, 〈더 에이치 콘서트〉의 일정 및 티켓 오픈 공지는 카카오톡 '에이치콘서트'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문의 예술지원팀 031 290 4604

지역 예술인 간 소통을 위한 노력
2020 화성시 아티스트 소셜 클럽



화성 시민들의 영상제
<내찍내알>



시민과 함께하는 화성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똑딱똑딱 미디어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서로 잇다
서로서로 예술 키트



화성시문화재단이 지역 예술인 간 네트워크 교류와 소통을 위한 '아티스트 소셜 클럽'을 시작했다. 아티스트 소셜 클럽은 화성 시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 사업으로, 관내 예술인과 소통을 나누는 간담회와 아웃리치 프로그램, 예술인들의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즐기는 아티스트 페어 프로그램을 진행해 지역 예술인을 발굴하고자 한다. 첫 시작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화성시 활동 예술인을 대상으로 1차 예술인 간담회를 개최해 시각, 공연, 혼합 분야별로 1차에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장르·연령별 예술인 간 이해의 폭을 넓혀 화성시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이 확대되길 기대하며, 2020년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예술지원팀 031 290 4603

화성시미디어센터가 시민들의 미디어 콘텐츠 제작 능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 영상제 <내찍내알>을 개최한다. <내찍내알>은 '내가 찍고 내가 알린다'는 의미로, 시민들이 직접 제작해 제출한 작품 중 선정하여 10월 23일에 진행되는 온라인 영상제에서 상영할 예정이다. 본 영상제의 모집 기간은 10월 5일 오후 6시까지로, 참여 대상은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뉘며 부문마다 주제와 출품 형식이 다르다.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메일로 일괄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영상제 접수 사무국의 접수 확인이 필요하다. 접수된 콘텐츠는 화성시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 '마스TV'에 접수순으로 업로드되며, 작품을 출품작과 상영작으로 구분해 1차 온라인 시민 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로 시상 작품이 선정된다. 개인 부문 출품작 38편, 단체 부문 출품작 6편을 시상작으로 선정하며 총 3,350만 원을 시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제 홈페이지 또는 영상제 접수 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hsmediaevent@naver.com
문의 영상제 접수 사무국 031 297 7778

2020년 하반기 화성시미디어센터는 화성시의 기관들과 화성시민이 함께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똑딱똑딱 미디어'를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거리두기로 인해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기획됐으며, 화성시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콘텐츠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화성시미디어센터는 9월 1일부터 11일까지 시민영상제작단을 모집해 선정했고, 시민영상제작단은 전문가와 함께 기획부터 촬영 및 출연까지 똑딱똑딱 미디어 일부 콘텐츠의 전반적인 제작 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또 다른 시민 참여형 콘텐츠인 '시민 이야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코로나19로 변화된 시민의 일상 영상을 모아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편집해 공개할 예정이다. 화성시의 이야기, 그리고 시민의 일상을 주제로 하는 똑딱똑딱 미디어는 9월 첫 주 예고편 공개를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화성시미디어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 '마스TV'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미디어팀 031 8015 2735

화성시문화재단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일상의 환기를 위해 '서로서로 예술 키트'를 배포한다. 서로서로 예술 키트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무기력증과 우울증 등 코로나 블루를 겪는 시민들을 위한 예술 처방으로,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으로 제작되어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서로 잇는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난 7월 지역문화팀은 1차 키트로 화성시의 여름 바다를 화상할 수 있는 DIY 자개 모빌을 제작해, 화성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화성시 곳곳에 1,500개의 키트를 배포했다. 본 키트는 장소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며, 지역 예술 강사의 만들기 설명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지속적인 비대면 문화예술 구축을 위해 연말까지 2, 3차 키트를 추가 제작해 총 4,500개의 키트를 화성시 전역에 배포할 예정이다. '집콕'해야 하는 시기, 예술 키트로 힐링해 보는 것은 어떨까.

문의 지역문화팀 031 290 4691

책을 통해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시간
화성시립도서관 팟캐스트 '북새통'



화성시립도서관이 오는 9월부터 팟캐스트 '북새통' 채널 연재를 시작한다. 북새통은 책으로 새롭게 소통하자는 의미로,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진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독서 모임 플랫폼을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MC와 사서, 그리고 화성시민으로 구성된 패널들이 출연해 선정된 도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한다. 화성시립도서관은 시민패널단을 모집하고 MC로 《이 책으로 어떤 대화를 나누게 될까?》의 저자이자 독서 커뮤니티·출판 브랜드인 '우리의 대화'의 대표 권인걸 독서문화기획자를 섭외했다. 네이버 오디오클립, 팟빵을 통해 9월 18일 첫 공개되는 팟캐스트 북새통은 '라이트북스: 가볍지만 빛나는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한국 젊은작가들의 문학을 함께 읽으며 패널들의 고민과 생각을 공유하고, 더불어 도서관 사서들의 이야기도 들려주며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문의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031 378 7344

집에서 듣는 인문 교양 강좌
화성문예아카데미 라이브 클래스



매 시즌 수강 신청이 시작되자마자 마감되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는 화성문예아카데미가 라이브 클래스로 열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카데미의 수업 개강이 잠정적으로 연기되며 많은 시민이 아쉬워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설되는 아카데미 라이브 클래스는 인문 교양 분야로, 온라인 수강 신청을 받아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강좌당 4회 차로 'ZOOM'에서 진행된다. 이서은 강사의 '신박한 명리命理!: 음양오행 편', 유지선 강사의 '책에서 만나는 은유의 세상', 이현승 강사의 '오페라로 세계여행: 이탈리아 편', 강희복 강사의 '마음공부와 생태적 삶', 민우아 강사의 '집에서 즐기는 베토벤 250주년', 주장운 강사의 '주춤: 씨네 클래식' 강좌를 집에서 만나보자.

예술인을 위한 화성시의 응원
M.I.H 프로젝트 예술단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예술 행사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관내 예술인들의 활동 지원을 위해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은 화성시 'M.I.H Made In Hwaseong 프로젝트 예술단'을 구성해 앞으로 4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창단된 M.I.H 프로젝트 예술단은 지역의 신진 예술인 육성과 함께 화성시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현악단, 합창단, 스트리트댄스팀 및 행정 보조로 구성

해 지난 7월 공모 과정을 통해 단원을 선발했고,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공연을 기획 및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관에서 주도한 공연에 예술인이 참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예술단은 단원들이 직접 공연 기획부터 방식, 대상 등을 선정한다. 새로운 공연을 만들어 나갈 M.I.H 프로젝트 예술단이 시민들의 지친 일상을 위로하는 문화예술이 되길 기대한다.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불확실한 시간이 계속되는 날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며 지친 시민들을 위해 화성시문화재단은 일상에서도 문화생활을 잃지 않도록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화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야외 공연 <ARTS STAGE: 숲, 섬, 텐크 콘서트>가 지난 7월 시작돼 공연예술계가 위축된 가운데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안전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잔디 객석에 일정 거리를 두고 텐트를 설치해 가족과 감성적인 분위기로 공연을 즐길 수 있어 사전 예약이 오픈되자마자 매진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더불어 전시 분야에서도 새로운 미디어아트 전시 공간인 아트스퀘어 개관을 기념하며 <LIA: Life Is Art>전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온전히 느낄 수 없기에 철저한 방역 및 안전관리와 사전 예약을 운영하며 전시를 선보였습니다. 만남을 통한 소통 자체가 불안으로 인식되면서, 재단은 온라인으로 시민들의 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즐기는 축제, 문화예술로 교류하는 플랫폼 <HAP 페스티벌> 홈페이지에 개막작으로 예술가 4인의 인터뷰를 공개했고, 예술가들의 창작 콘텐츠를 지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진행된 <2020 품앗이 공연예술축제>는 축제 현장에 함께 할 수 없어 아쉬운 시민들을 위해 유튜브에 공연 실황도 공개했습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일상 속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17.8월쯤 집에 배곧에
 되는 걱정 접히게 되었어요.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좋지 않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누군가와 함께 즐기는 여름.
 여름이 되면 무언가 안되고 싶었는데
 가족, 친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있던 날을 많이 좋아해요.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또는 《화분》 편집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주린이 디자인 마땅한 거 많아요
 이야기 구체.

▶ 지난 호에서 사랑하는 이와 함께 무언가 만들어볼 수 있는 문화 데이트를 소개해 드렸는데,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호도 한가위를 맞아 마음을 담은 선물하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행정복지센터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좋지 않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THE 도시의 삶의 양면성 형상 원근
 옛날 어릴적 향수를 가득 담은 이야기들이
 희열과 허탈의 표정을 지어 주며 추억과
 정서로 뒤섞여 주는 것 같은 감정에 원상해."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또는 《화분》 편집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위키 크린톤 위해 각종 문화 활동들이
 긴 시간 연결되어 참 좋긴 시간들인 지내고
 유익한 독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때
 비록 비 같은 "화분" 지기 되었으면 합니다.

▶ '형도'를 통해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셨다니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모두가 지쳐버린 이 시기, 《화분》이 시민분께 비타민 같은 활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장소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문의 031 8015 8112

화성시문화재단 운영시설

- 동탄복합문화센터
- 화성시미디어센터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 만세길방문자센터
- 화성아트홀
- 반석아트홀
- 누림아트홀

도서관

- 남양도서관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등지나래어린이도서관
- 봉담도서관
- 병점도서관
- 삼괴도서관
- 송산도서관
- 송린이음터도서관
- 정남도서관
- 진안도서관
- 태안도서관

작은 도서관

- 샘내작은도서관
- 기아행복마루도서관
- 비봉작은도서관
- 마도작은도서관
- 팔탄작은도서관
- 양감작은도서관
- 호수나래작은도서관

문화시설

- 노작홍사용문학관
- 로알앤컴퍼니 아울렛
- 모두누림센터
-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 소다미술관
- 엄미술관
- 유앤아이센터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카페

- 다락
- 다원
- 달팽이그림책카페
- 손커피연구소
- 차마시는뜰
- 카페 그루비
- 에데니코 커피 로스터스

호텔

- 라비돌리조트
- 푸르미르호텔

기타

- 독립서점 모모책방

온라인 구독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무가지입니다.
 배포처 방문 또는 온라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공공시설 운영이 잠정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한정적으로 매거진 《화분》을 집으로 우편배송 해드립니다.



매거진 《화분》 VOL. 48 배송 신청하기

- 신청기간 2020년 9월 21일(월)~11월 19일(목)
- 추가 신청기간 2020년 11월 20일(금)~12월 10일(목)
- 1차 발송: 2020년 11월 23일(월) 예정
- 2차 발송: 2020년 11월 30일(월) 예정
- 3차 발송: 2020년 12월 11일(금) 예정

*신청기간 내 신청해주신 분만 배송 가능합니다.



《화분》 47호를 만든 사람들



차영은 | 화성시문화재단

이번 호의 주제는 도전이에요. 평소 해보고 싶었던 것들에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너무나도 지치는 이 시기, 작은 행복으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차유나 | 화성시문화재단

잠깐이지만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시민분들과 소통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이번 경험을 토대로 더 재미있고 신선한 소통 방법을 찾아보고자 해요.

김채은 | 어라운드

올해 중 가장 도전을 많이 시도한 달이었어요. 장롱 면허를 탈출하기 위한 도전을 시작했고, 많은 업무를 침착히 해결하려는 작은 도전도 시도했죠. 모든 도전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가을을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하나 | 어라운드

늘 가까이에 있던 것들이 새삼스럽고 아득하게 느껴지는 요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적으려니 그동안 주저하다 흘려보낸 기회들이 떠올라요. 올가을엔 아직 곁에 남은 기회와 손들을 놓치지 않고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이다은 | 어라운드

언제부턴가 거창한 도전보다는 나만 아는 사소한 도전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전에 해보지 못한 일을 해보거나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처럼 하나하나 성공의 경험이 모이면 큰 목표에도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주연 | 어라운드

도전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오기를 앞세우기보다는 건강하게 주먹을 쥐는 게 중요하죠. <GREEN FANTASY> 참여 작가 두 분과 이야기하며 자연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지구의 외침을 되새기고, 두 주먹 안에 용기를 담아보려고요. 초록 빛 별을 되살리기 위해 도오전!

김지수 | 어라운드

올해는 유독 여름 같지 않은 여름을 보낸 것 같아요. 뜨거운 빛 대신 흐린 장마철을, 시원한 물놀이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휴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쉬운 여름이었기에 다가오는 가을은 더욱 더 알차게 보내고 싶네요. 가을과 함께 '도전'이 가득한 이야기를 담은 이번 《화분》을 펼치며 새롭게 시작해봅시다!



©그레이스그레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0.10.01~2021.09.30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북합문문화센터 3층
경영기획국 기획홍보팀 《화분》 담당자

그레이스그래니

동탄에 있는 디저트 카페.
따뜻한 공간에 빈티지하고 아기자기한 소품이 가득하다.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매거진 《화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업서에 적어서 보내주신 내용은 더 좋은 《화분》을 만드는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답변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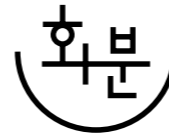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또는 《화분》 편집부에 전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VOL.47 | JUMP
2020 SEPTEMBER & OCTOBER
문화를 담은 빛나는 그릇

발행처	(재)화성시문화재단
발행인	최형오
편집국장	서관석
편집팀장	정희봉
기획·편집	차영은, (주)아라운드
디자인·인쇄	(주)아라운드
홈페이지	hcf.or.kr
주소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전화	031 8015 8112
팩스	031 8015 8129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 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은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원고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허 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본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지인 그린라이프지를 사용합니다.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10
INTERVIEW
작가 이재형, 최중운

34
FEATURE
선물과 함께하는 문화 데이트

58
PEOPLE
화성인의 도전